

우리나라 대학생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A Survey Research on Information Literacy Level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이 수 상(Soo-Sang Lee)**

목 차

1. 서 론	3.1 조사 개요
1.1 연구의 목적	3.2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개발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3.3 조사의 설계
2. 정보 리터러시의 이론적 배경	4. 조사결과의 내용
2.1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	4.1 기초통계량 분석
2.2 정보 리터러시의 소유자	4.2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2.3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표준화	4.3 집단간의 차이 분석
3.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5. 결 론

초 록

정보 리터러시는 다양한 유형의 리터러시들과 관련되며, 디지털 기반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역량으로 정의된다. 이 실태조사는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이다. 평가를 위하여, 5가지 수행과정 영역과 12가지 수행능력 영역으로 구성되는 적절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결과평가' 수행과정 요소는 다른 수행과정 요소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나타내었다. 2) 5가지 수행과정 요소들과 12가지 수행능력 요소들 대부분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 학년, 정보검색 첫 경험시기, 관련된 교육 경험에 따라 개인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 보였다.

ABSTRACT

Information literacy which is related various forms of literacy can be defined as a vital competency of individuals in digital based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This basic survey research is aimed to assess information literacy level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For this study, a proper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is used which based 5 performance processes and 12 performance abilities.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as follows: 1) Among the 5 performance process elements, 'result evaluation' element showed high level competency than other elements. 2) There were high correlations within performance process elements and performance ability elements. 3) Those items such as academic grade, first experience of information retrieval, and experience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ffect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키워드: 정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 정보 리터러시 모형, 연구과정 모형, 수행능력 모형, 수행모형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te Person, Information Literacy Model, Research Process Model, Performance Ability Model, Performance Model

* 본 연구는 2005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문현정보학과 조교수(sslee@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14일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얼마 전 신문기사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돈을 주고 산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리서치 기업인 엠브레인이 대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이다(세계일보 2006). 이 조사에서는 인터넷의 보급이 대학생들의 리포트 작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요즘 대학생들에 의해 행해지는 리포트 베껴쓰기의 실태, 왜곡된 지식문화의 한 단면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카피 앤드 페이스트(copy & paste)는 지금의 지식정보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정보접근의 편리함과 정보공유 문화의 확대가 불러온 부작용으로, 정보활용 방식에 있어 무질서가 발생한 현상이다. 일종의 ‘정보공유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극을 대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현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초중등학교 학생, 일반인, 전문가집단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능력이 저하되고, 창조적 지식생산 활동도 저해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정보의 활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얻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여과과정이 없이 곧바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정보의 활용법은 매

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이다. 이러한 개인의 능력은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생존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능력의 수준이 낮은 학생은 사회적 적응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이 바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이다. 정보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활용 전반에 관련된 개인적 역량이다. 이것은 정보의 요구를 식별하고, 요구된 정보를 찾아내고, 찾아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의 생산에 적용하며 관리하는 등의 정보활용 전반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능력들의 집합을 뜻한다.

대학생들은 교과학습의 일환이든 또는 개인적 관심에 과제연구(리포트)를 많이 수행한다. 대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연구의 대부분은 기존의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해결되는 정보문제(information problem)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는 정보문제의 과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들은 비단 대학생활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데 주요한 기반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대학 도서관은 대학생들의 정보과제 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써 도서관연구(library research) 방법에 대한 교육과지도 활동을 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라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과제연구와 관련한 정보 리터러시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대학생들의 과제연구의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의 요건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제시한다. 그

런 다음, 해당 모형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특성을 분석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는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 적용 가능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연구는 개발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토대로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실태를 조사하는데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계열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0명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데이터의 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기초적인 통계량 이외에도 정보 리터러시를 구성요인들의 상관관계 검정, 다양한 집단들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검정 작업이 포함된다.

2. 정보 리터러시의 이론적 배경

2.1 정보 리터러시의 정의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와 ‘리터러시’가 합성한 단어이다. 후자의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문자로 된 텍스트(문학작품 등)를 이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문자 리터러시(textual literacy)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문자형식의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리터러시를 문해(文解)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글의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사람을 문해자,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가 불가능할 경우 반(半)문해자, 그리고 읽기와 쓰기가 불가능할 경우 비(非)문해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리터러시의 반대어인 ‘illiteracy’를 문맹(文盲)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용어에서 보면, 문맹자, 반문맹자, 비문맹자라는 용어가 가능하다.

한편, 전자의 정보(information)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된다. 특히 인간에게 있어 정보는 감각도구로부터 수신되는 모든 실체이며, 문자정보, 이미지정보, 음성정보, 동영상정보, 하이퍼미디어정보, 멀티미디어정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각종 정보들을 수신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등의 행위들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정보 리터러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문자정보의 문해나 문맹의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형식의 정보미디어인 문헌 정보를 선택하고, 독해하며, 표현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정보 리터러시를 나타내는 영문 표기는 ‘information literacy’이며, 이외에도 ‘information skill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information competency’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활용’, ‘정보활용능력’, ‘정보이용능력’, ‘정보소양’, ‘정보문해’ 등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영문 발음을 그대로 사용해서 ‘정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사실 적합한 한글용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

고 둘째, 개인, 교육, 역량, 수준 등과 같은 용어를 합성하여 복합어를 구성할 경우 유연하게 발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정보 리터러시’로 표기할 것이다.

정보 리터러시 개념의 기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도서관에서 수행하여 온 도서관 이용교육(library instruction)까지 포함하면, 그 기원은 아주 오래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활용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 관점의 용어와 개념은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인 쥬르코브스키(Paul Zirkowski)가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정보능력(information skills)이라는 용어로 소개되었지만, 자신의 일에서 요구되는 정보문제에 적합한 정보원을 사용하고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사람 즉, 자신의 일에 숙달되게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고 한다(Owusu-Ansah, E. K. 2005).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ALA) 정보 리터러시 관련 대통령위원회는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라는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여기서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시대의 생존기술로 정의된다(ALA 1989). 백서의 권고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 국가포럼(The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이 조직되어,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백서의 발행과 포럼이 구성되는 1989년은 정보 리

터러시 영역에 있어 주요한 전환점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포럼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정보의 요구가 필요한 시기를 알고, 논제나 과제를 위한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www.infolit.org)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는 학교(초중등학교, 대학 등), 직장, 일상에서 학습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기에, 이들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활용된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 사회에서 생활하는 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역량이라는 점이다. 적정 수준을 갖추지 않으면 정보 리터러시 격차가 생기고, 이것은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의 정보 리터러시 확보문제는 개인, 단체, 조직,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정보 리터러시의 표준요건 정의, 교육 문제, 격차해소 방안 등의 아젠더를 설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 ODLIS(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개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능력으로, 도서관의 구성체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과 그것의 포맷 및 검색방법 등에 친숙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기법(research techniques)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보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응용하며,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적 구조(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과 영향력을 포함)를 이해하는 능력

도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DLIS 2007). 도서관 서비스, 연구기법, 정보사회학적 이해능력 등을 주요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다.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ACRL의 정의는 여러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다. ACRL에서는 정보 리터러시를 “개인이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의 집합이라고 아주 합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ACRL 2000). 또한 번디(Bundy)처럼 정보 리터러시를 “참여적 시민 의식, 사회적 포용, 새로운 지식의 창조 개인의 역량 강화, 평생교육을 위한 필수요건”(Bundy 2003)과 같이 정의하여 보다 사회학적 함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정의와 대동소이하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하여튼 정보 리터러시는 지식정보사회의 개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의 집합(a set of skills/abilities)이며, 이러한 능력들을 역량(competency)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역량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과 경험을 통해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역량 소유의 정도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정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용어는 기술 리터러시(technology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비주얼 라터러시(visual literacy), 비즈니스 리터러시(business literacy), 커뮤니티 리터러시(community literacy), 컴퓨터 리터러시(computer literacy) 등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각각은 고유한 내용과 범

위로 설명되고 있다.

정리하면, 다양한 유형의 리터러시들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이다. 이들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격이 다른 영역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이들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견해가 가능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가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 사회의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건이며, 그것의 기본내용과 포괄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 사회에서 정보 리터러시가 개인의 역량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이 구분된다. 첫째, 개인의 역량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과 범위는 과연 무엇인가? 둘째, 개인의 역량을 설명하고 규정하는 기준이나 모형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는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사람에 대한 정의이고, 후자는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표준화에 관한 것이다.

2.2 정보 리터러시의 소유자

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춘 사람을 영어권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information literate person)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가 없다. 간혹 ‘정보소양인’, ‘정보지식인’ 또는 ‘정보문해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정보 리터러시가 정보활용 과정에 대한 지식, 특히 정보자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비판적 지식을 가지며,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만들어 내는 지적인 능력들 또는 적정 수준의 지적 역량이라면,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는 이러한 지적역량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다.

정보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개인 즉,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에 대한 개념은 부르스(Bruce)의 7가지 경험과 도일(Doyle)의 정의가 가장 많이 인용된다. 그리고 캔디 등(Candy, Crebert & O'Leary)의 정의도 설명력이 매우 높다(Bruce 1997; Doyle 1998; Candy, Crebert & O'Leary 1994).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3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표준화

정보 리터러시 모형은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한 표준 또는 기준을 말한다.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용도는 특정한 대상(K-12 학생, 대학생, 전문가 등)에게 요구되는 영역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 리터러시의 교육체계를 구성하거나 개인별 정보 리터

러시의 수준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정보 리터러시가 21세기 개인의 생존능력으로서, 국제적, 국가적, 기관 등의 수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나 대학교의 도서관 또는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이 알려진 모형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 유형의 모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의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는 경우이다. 둘째, 개인의 문제해결, 정보검색, 연구수행 등을 위한 연구과정(research process)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구분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연관성이 매우 높다. 단지 모형이 강조하는 기본요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다. 수행능력 모형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생존요건을 강조하며, 연구과정

〈표 1〉 정보 리터러시 소유자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

부르스(Bruce)	도일(Doyle)	캔디 등(Candy, Crebert & O'Leary)
- 정보의 인식과 소통을 위한 정보기술 경험	- 정보에 대한 요구의 인식	-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는 능력
- 다양한 방식의 정보탐색 경험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지능적 의사결정의 기본임을 인식	-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 능력
-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 정보과정 경험	- 정보요구에 기반한 질의를 구성	-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능력
- 적합한 정보의 식별, 정보의 관리 등 정보통제 경험	-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식별	- 정보와 해당 정보원을 평가하는 능력
- 개인적 지식체계의 구축 경험	- 성공적인 정보검색전략의 개발	- 선택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에 통합하는 능력
- 개인적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의 확장 경험	- 컴퓨터나 다른 기술을 통한 정보원의 접근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 정보의 지혜로운 사용 경험	- 정보의 평가	- 정보이용과 관련된 경제, 법률, 사회, 문화적 쟁점을 이해하는 능력
	-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정보의 조직	- 윤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보를 접근하고 사용하는 능력
	-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체계로 통합	- 수집 또는 생산된 정보를 분류, 저장, 처리, 재구성하는 능력
	-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에 기반한 정보의 이용	- 정보 리터러시를 평생학습의 필수요건으로 인식하는 능력

모형은 개인이 정보기반의 연구과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방법론적 수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이 적용대상을 K-12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 영역,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영역, 그리고 일반인들의 평생교육 영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영역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을 수도 한다.

최근까지 많이 알려진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유형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에서 <표 4>와 같다(ACRL 2000; SCONUL 1999; ANZIIL 2004; Eisenberg 2006, Stripling & Pitts 1988, McKenzie 2000, Follett Software Company 2000). 이러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은 개인의 능력을 규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된다.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육 프로그램

의 방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다양한 강의교과목의 일부 영역으로 구성하여 강사가 교육하는 경우이다. 둘째, 도서관에서 교육, 평가, 지도 등과 같은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담당사서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이다. 셋째, 강의교과목과 도서관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경우이다.

3.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3.1 조사 개요

이 작업은 우리 나라 대학생들에 적합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고 해당 모형을 토대

<표 2>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분류

대상	외국모형	국내모형
수행능력 모형	ACRL 기준 [미국] SCONUL 기준 [영국] ANZIIL 기준 [호주/뉴질랜드] CAUL 기준 [호주] AASL/AECT 기준 [미국] CSLA 모형 [미국]	
연구과정 모형	Big6 Skills 모형 Super 3 모형 8Ws 모형 InfoZone Research Skills 모형 Irving의 Information Skills 모형 Kuhlthau의 ISP 모형 Schulz의 Research Process 모형 Pitts/Stripling의 Research Process 모형 McKenzie의 Research Cycle 2000 모형 Follett의 Pathways to Knowledge 모형 Organized Investigator 모형 The Building Blocks of Research 모형 DIF(Digital Information Fluency) 모형 Information Literacy Matrix 모형 I-Search 모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모형

〈표 3〉 주요 수행능력 모형의 내용 비교

ACRL 모형	SCONUL 모형	ANZIL 모형
1.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능력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결정 능력	1. 정보요구의 인식 능력 2. 정보결손의 확인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3. 검색전략의 구축 능력 4. 소재파악 및 검색 능력
3. 정보의 비판적 평가와 선택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로의 결합 능력	3.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5. 비교평가 능력
4.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능력	4. 축적, 수집, 생산된 정보의 관리 능력 5.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적용 능력	6. 정보의 조직, 적용, 전달 능력 7. 기존 정보의 종합 및 새로운 지식의 창조 능력
5. 정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6.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표 4〉 주요 연구과정 모형의 내용 비교

Big6 Skills 모형	Pitts/Stripling의 Research Process 모형	McKenzie의 Research Cycle 2000 모형	Follett의 Pathways to Knowledge 모형
1. 과제의 정의 1.1 문제 정의 1.2 정보요구 인식	1. 광역 주제의 선택 2. 주제의 개요 파악 3. 주제의 세분화 4. 논제와 목표의 개발	1. 논제의 설정	1. 정보요구의 인식
2. 정보추구전략의 수립 2.1 정보원 범위 결정 2.2 정보원 순위 결정	5. 연구과제의 구성 6. 연구와 산출물 계획	2. 최적의 정보수집 전략의 수립	2. 사전검색 - 주제와 세부주제의 구분 - 정보요구의 정의
3. 검색과 접근 3.1 정보원 선택 3.2 정보 탐색	7. 정보원의 검색, 분석, 평가	3. 적합하고 유용한 정보의 수집 4. 수집된 정보의 정렬과 치환	3. 적합정보의 검색 - 적절한 정보원의 식별 - 검색 전략의 수립 및 실행
4. 정보의 이용 4.1 판독(독해, 보기 등) 4.2 정보 추출	8. 적합성 평가/노트 작성/ 서지 작성	6. 수집된 정보의 평가	4. 정보의 해석 - 검색된 정보자원의 적합성 및 유용성의 분석과 평가
5. 종합 5.1 정보 정리 5.2 결과물 작성	9. 결론 구성 및 정보의 개괄적 정리 10. 최종결과물의 생산	5. 수집된 정보의 종합분석 7. 보고서의 작성	5. 소통 - 정보요구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의 구성 - 결과물의 생산과 공유
6. 평가 6.1 결과물 평가 6.2 과정 평가			6. 평가 - 지식생산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로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또한 대학생들이 수강하는 각종 강의활동에서 제시되는 정보연구(information research)형 과제 즉, 정보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문제 해결능력으로 그 적용영역도 한

정하였다. 대학생이라는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정보문제의 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영역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강의수강은 대학생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며, 강의에서는 요구되는 수많은 학습과제가 요구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정보 활용을 필요로 하는 정보 과제이므로, 정보과제의 수행에서 정보 리터러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수행 방법론이다. 둘째, 정보과제의 수행은 대학생 수준에서 요구되는 가장 포괄적이면서 적정 수준의 정보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보과제를 기반으로 정보 리터러시의 역량을 정의하고 모형화 하는 작업은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각종 정보활동에 적용가능한 범용적 정보 리터러시 모형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적절한 평가모형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내용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에 수행된 주요 연구는 오의경, 이정연, 박남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오의경은 정보 리터러시 관련 요인의 현황, 요인간 관계, 영향력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정도구를 고안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오의경 2006). 주요한 조사의 결과는 대학생들에게는 도서관 이용교육, 인쇄정보원과 전자정보원의 경험, 교수진의 조언의 정도가 크게 낮아 정보 리터러시에 도움을 못준다는 사실과 정보 리터러시 수준이 개인별 집단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 등이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정연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 영역별 모형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의 개인별 정보 리터러시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적인 정보 리터러시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이정연 2005).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 대학생들은 전공, 학년, 도서관 이용빈

도 등과 같은 기초환경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는 없다는 사실,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개념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정보 리터러시에 관하여 자신감이 없다는 사실, 대체적으로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이 낮다는 사실 등이다.

박남진은 정규 정보이용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조사대상으로 이들의 정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박남진 2005). 조사결과, 학부생들은 컴퓨터 활용능력과 도서관 지식이 정보 리터러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위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과정 모형과 수행능력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연구과제 수행이라는 적용범위가 보다 뚜렷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된 모형을 토대로 간략한 실태 평가 도구를 만들어 대학생 집단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즉, 다양한 통계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크기, 관련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집단간 차이등의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3.2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개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개발하였다. 첫째, 앞서 살펴본 정보 리터러시 모형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각종 정보연구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수행과정으로 범주화하고, 각 수행과정별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수행능력들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수행과정과 수행능력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수행지표들도 기준의 정

보 리터러시 모형들을 참조하여 정의하였다. 이것은 정보과제 수행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단계적인 수행과정과 각 단계별 필수적인 수행능력들로 구성한 것이다. 즉, 대학생들의 정보연구형 학습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는 일련의 수행과정과 수행능력의 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정보 리터러시 모형은 5가지 수행과정(performance process)과 12가지 수행능력(performance ability), 그리고 수행능력별 구체적인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들로 구성되는 수행모형(performance model)으로 제안한다. 수행모형의 기본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3.3 조사의 설계

3.3.1 측정도구의 설계

수행모형에서 정의된 수행과정, 수행능력, 그리고 수행지표들로 구성되는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다. 수행능력별 수행지표

<표 5> 수행모형의 개요

수행과정	수행능력	수행지표
정보요구	정보과제의 이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report)를 정보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정보연구형 과제(정보과제)로 이해 - 정보과제의 성격(목적, 내용, 범위 등)에 대한 파악 -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
	정보요구의 분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과제를 구성하는 핵심개념들에 대한 파악, 정보요구가 가능한 세부과제로 구분 - 이미 알고 있는 정보요구와 조사가 필요한 정보요구로 구분
정보검색	검색전략의 개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의 파악 - 적합한 정보자원의 선택 - 선택된 정보자원의 검색사이트 설정
	검색기법의 활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사이트의 검색기법 식별 - 식별된 검색기법에 따라 검색질의 작성 및 입력
	검색결과의 평가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결과의 서지정보의 이해 - 서지정보 기반의 검색결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정보분석	검색된 정보자원의 접근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 정보자원의 접근 조건에 대한 이해 - 적합 정보자원의 본문 접근의 수행
	정보자원의 독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자원의 독해를 위한 미디어와 도구의 이해 - 확보된 정보자원의 내용에 대한 독해
	정보자원의 요약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해한 정보자원의 본문에서 정보요구 해결에 유용한 내용의 식별 - 유용한 정보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보의 구성
정보기공	지식화 처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요구별 요약정보의 범주화(분류, 조직 등) - 적절한 인용형식을 통해 인용문헌을 표시
	보고서 작성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지식을 조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설계 - 응용도구를 사용하여 결과보고서 편집 - 결과보고서의 배포를 위한 처리
결과평가	결과 지식의 만족도 평가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과정의 만족도 - 생산결과의 만족도
	정보윤리의 적합성 평가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 및 참고문헌 작성법 준수 - 인용 및 표절 평가

들은 관련된 수행능력에 대한 인식능력, 판단 능력, 사용능력 등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성과에 관한 지표들이다. 본 조사에서는 수행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를 측정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문항은 30개로 구성되며, 12가지 수행능력의 수행지표들에 관한 25 문항, 그리고 개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일반사항의 5 문항이 포함된다. 수행능력에 대한 문항들은 5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반사항은 집단구분을 위한 것으로,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집단구분은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대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성별, 학년, 학부(학과), 정보검색 경험 시작 시기, 정보검색관련 교육 이수 여부 항목으로 선택하였다.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구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수행과정	수행능력	선정된 수행지표	문항수
정보요구	정보과제의 이해능력	정보의 필요성 인식능력 정보과제의 계획 수립능력	2
	정보요구의 분해능력	과제의 핵심개념 파악능력 정보검색의 필요성 인식능력	
정보검색	검색전략의 개발능력	정보자원의 종류 구분능력 정보자원의 출처 검색능력	2
	검색기법의 활용능력	검색기법의 종류 구분능력 검색항목 사용능력 검색엔진의 연산자 사용능력	
정보분석	검색결과의 평가능력	검색결과의 서지정보 구분능력 검색결과의 적합성 판단능력	3
	검색된 정보자원의 접근능력	저작권(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능력 정보자원의 접근방식 활용능력	
정보가공	정보자원의 독해능력	정보 미디어 도구의 사용능력 정보자원의 독해능력	2
	정보자원의 요약능력	정보자원의 본문 구분능력 정보자원의 본문 발췌능력	
결과평가	지식화 처리능력	검색된 정보자원의 분류, 조직능력 정보자원의 인용형식 이해능력	2
	보고서 작성능력	문서작성 프로그램 운용능력 과제결과 보고방법 사용능력	
일반사항	결과 지식의 만족도 평가능력	결과 보고서 생산과정에 대한 효율성 평가능력 결과 보고서에 대한 효과성 평가능력	2
	정보윤리의 적합성 평가능력	참고문헌 인용표시 판단능력 표절여부 검증능력	
성별 학년 학부 및 학과 정보검색 경험 시작 시기 정보검색관련 교육 이수 여부			5

3.3.2 데이터 수집 방법

설문지조사는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에 이르는 2주간(14일)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사회과학대학, 상과대학, 법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이 타 계열의 학생들보다 정보과제를 많이 수행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수를 결정하였고, 소속 학과별로 정해진 인원수만큼 직접 만나서 조사하였다.

3.3.3 데이터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윈도우용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0.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내용은 3가지 영역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항목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측정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보 리터러시를 구성하는 5가지 수행과정 영역과 12가지 수행능력 영역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에 대한 집단(성별, 학년,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 정보검색관련 교육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별 정보 리터러시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조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문항에 대한 크론바하의 알파(Chronbach's Alpha) 계수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5가지 수행과정 영역의 알파계수값(0.7552), 12가지 수행능력 영역의 알파계수값(0.8291), 그리고 25가지 수행지표 영역의 알파계수값(0.8598) 모두 높게 나타났으므로, 조사도구의 모든 문항은 신뢰도(내적일관성)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조사결과의 내용

4.1 기초통계량 분석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5가지 수행과정과 12가지 수행능력의 평균값은 <표 7>과 같다. 각 요

<표 7>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기초 통계량

수행과정	평균	표준편차	수행능력	평균	표준편차
정보요구	2.0575	.4727	정보과제의 이해능력	2.0575	.5608
			정보요구의 분해능력	2.0575	.5563
정보검색	2.8556	.5493	검색전략의 개발능력	2.5750	.7680
			검색기법의 활용능력	3.1017	.7413
			검색결과의 평가능력	2.6050	.6232
			검색된 정보자원의 접근능력	3.0175	.7113
정보분석	2.4463	.5742	정보자원의 독해능력	2.4175	.7329
			정보자원의 요약능력	2.4750	.6683
정보가공	2.6063	.6407	지식화 처리능력	2.7825	.7222
			보고서 작성능력	2.4300	.7701
결과평가	3.1187	.6776	결과지식의 만족도 평가능력	2.9300	.8083
			정보윤리의 적합성 평가능력	3.3075	.8307
전체	2.6169	.4175	최소값: 1.39, 최대값: 3.91		

소의 평균값은 1점에서 5점 사이에 분포되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소의 평균값 분포의 실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평균값 (2.6169)이 2.6 수준이라는 것은 표본대상 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이 대체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행과정 영역에서는 '결과평가'(3.1187)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보요구'(2.0575)의 평균값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구체적인 12가지 수행능력별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즉, 수행능력 영역에서는 '정보윤리의 적합성 평가능력'(3.3075)과 '검색기법의 활용능력' (3.10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보과제의 이해능력'(2.0575)과 '정보요구의 분해능력' (2.0575)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보과제로부터 정보요구를 도출하는 능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과제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윤리문제의 평가와 같은 평가능력은 그래도 높다고 하겠다.

4.2 영역별 상관관계 분석

4.2.1 수행과정 영역의 상관관계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영역에서 상관계수는 0.3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0.5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인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요구'와 '정보검색', '정보요구'와 '결과평가' 요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소들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분석' 요소와 '정보가공' 요소는 나머지 모든 수행과정 요소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검색'과 '결과평가', '정보가공'과 '정보분석'은 다른 수행과정 요소들간의 관계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보검색 역량과 결과평가 역량, 그리고 정보분석 역량과 정보가공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수행과정 요소들은 전체 정보 리터러시 수준과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표 8〉 수행과정 영역의 상관관계

수행과정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분석	정보가공	결과평가	전체
정보요구	1	.175(*)	.301(**)	.356(**)	.209(**)	.532(*)
정보검색	.175(*)	1	.499(**)	.439(**)	.520(**)	.744(*)
정보분석	.301(**)	.499(**)	1	.553(**)	.414(**)	.778(*)
정보가공	.356(**)	.439(**)	.553(**)	1	.333(**)	.763(*)
결과평가	.209(**)	.520(**)	.414(**)	.333(**)	1	.725(*)
전체	.532(*)	.744(*)	.778(*)	.763(*)	.725(*)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수행과정 요소별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2 수행능력 영역의 상관관계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수행능력 영역의 12가지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정보요구의 분해능력’은 ‘정보과제의 이해 능력’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나머지 수행능력 요소들과는 상호간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검색결과의 평가능력’과 ‘자식화 처리능력’은 다른 대부분의 수행능력 요소들과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5가지 수행과정 요소 내에서 포함되는 수행능력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상호간 연관성이 높은 수행능력 요소들이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3 집단간의 차이 분석

응답자의 성별, 학년별,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 및 정보검색관련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전체 평균값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4.3.1 성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2.6194)과 여성(2.6140)의 평균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검정 통계량의 유의확률값(0.928)도 유의수준(0.05)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므로, 집단 간의 차이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

<표 9> 수행능력 영역의 상관관계

수행과정 / 수행능력	정보요구		정보검색			정보분석		정보가공		결과평가		
	이해	분해	개발	활용	평가	접근	독해	요약	처리	작성	만족도	적합성
정보 요구	이해	1	.432(**)	.145(*)	.125	.249(**)	.155(*)	.158(*)	.222(**)	.385(**)	.184(**)	.330(**)
	분해	.432(**)	1	.107	-.077	.218(**)	.118	.190(**)	.271(**)	.297(**)	.180(*)	.129
정보 검색	개발	.145(*)	.107	1	.426(**)	.461(**)	.430(**)	.315(**)	.327(**)	.324(**)	.160(*)	.237(**)
	활용	.125	-.077	.426(**)	1	.464(**)	.473(**)	.364(**)	.244(**)	.276(**)	.208(**)	.329(**)
정보 분석	평가	.249(**)	.218(**)	.461(**)	.464(**)	1	.404(**)	.349(**)	.444(**)	.439(**)	.343(**)	.359(**)
	접근	.155(*)	.118	.330(**)	.473(**)	.404(**)	1	.237(**)	.268(**)	.357(**)	.312(**)	.216(**)
정보 가공	독해	.158(*)	.190(**)	.315(**)	.364(**)	.349(**)	.237(**)	1	.342(**)	.379(**)	.450(**)	.262(**)
	요약	.222(**)	.271(**)	.327(**)	.244(**)	.444(**)	.268(**)	.342(**)	1	.429(**)	.294(**)	.404(**)
결과 평가	처리	.385(**)	.297(**)	.324(**)	.276(**)	.439(**)	.357(**)	.379(**)	.429(**)	1	.474(**)	.335(**)
	작성	.184(**)	.180(*)	.160(*)	.208(**)	.343(**)	.312(**)	.450(**)	.294(**)	.474(**)	1	.200(**)
결과 평가	만족도	.330(**)	.129	.237(**)	.329(**)	.359(**)	.216(**)	.262(**)	.404(**)	.335(**)	.200(**)	1
적합성	.132	-.003	.377(**)	.365(**)	.330(**)	.416(**)	.209(**)	.258(**)	.342(**)	.367(**)	.367(**)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10〉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

영역	구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F값	유의확률
성별	남성	107	2.6194	.4260	4.118E-02	.008	.928
	여성	93	2.6140	.4097	4.249E-02		
학년	1학년	55	2.7392	.3795	5.117E-02	3.677	<u>.013</u>
	2학년	46	2.6639	.3702	5.458E-02		
	3학년	46	2.5651	.4416	6.511E-02		
	4학년	53	2.4940	.4410	6.057E-02		
단과대	사회대	64	2.6144	.4429	5.536E-02	.065	.937
	상대	100	2.6103	.4140	4.140E-02		
	법대	36	2.6394	.3901	6.501E-02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	미취학/초등 재학 중	33	2.4896	.3988	6.943E-02	2.757	<u>.044</u>
	중등 재학 중	81	2.5750	.3514	3.904E-02		
	고등 재학 중	52	2.6841	.4702	6.521E-02		
	대학 재학 중	34	2.7373	.4616	7.916E-02		
정보검색관련 교육경험	있다	75	2.5051	.3679	4.248E-02	8.943	<u>.003</u>
	없다	125	2.6839	.4322	3.866E-02		
	전체	200	2.6169	.4175	2.952E-02		

른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3.2 학년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각각의 평균값이 1학년(2.7392), 2학년(2.6639), 3학년(2.5651), 4학년(2.4940)으로 고학년일수록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검정의 유의확률값(0.013)이므로, 학년별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차이는 유의수준(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년간에 차이가 나고, 저학년 일수록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저학년일수록 대학 또는 대학 이전의 과정에서 정보 리터러시의 역량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기회가 많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3.3 단과대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별로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각각의 평균값이 사회대(2.6144), 상대(2.6103), 법대(2.6394)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F검정의 유의확률값(0.937)이 유의수준(0.0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단과대별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4.3.4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별 차이 분석

정보검색에 대한 경험 시기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 분석 결과, 미취학 및 초등 재학 중(2.4896), 중등 재학 중(2.5750), 고등 재학 중(2.6841), 대학 재학 중(2.7373)으로 약간의 평균값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F검정의 유의확률값(0.044)이 유의수준(0.05)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의 차이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정보검색을 처음 경험한 시기가 최근일수록 정보 리터러시의 수준차이는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4.3.5 정보검색관련 교육경험의 유무별 차이 분석

정보검색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유무에 따른 정보 리터러시에 차이분석 결과는 '경험이 있다'(2.5051)와 '경험이 없다'(2.6839)의 평균 값은 두 집단간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F 검정의 유의확률값(0.003)은 유의수준(0.05 또는 0.01)보다 낮으므로, 집단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정보검색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는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검색 교육은 정보 검색 관련 역량을 높일 것이며, 정보검색의 역량은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21세기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 리터러시는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정보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지식정보의 디지털 미디어 조작 및 비판 능력, 지식정보원과 개별자원에 대한 운용능력, 디지털 커뮤니티의 참여 능력 등이 해당된다. 결국 정보 리터러시는 이러한 정보 기술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티 리터러시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리터러시의 핵심 능력으로 구성된 협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디지털 기반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리터러시는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로 통해 개발되고, 활용하고, 신장된다는 것이다.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 리터러시를 개발하고 신장할 수 있지만(Weber 2003), 디지털 도서관을 배제하고는 논의할 수 없다. 그래서 디지털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 리터러시 활동에 유용한 디지털 자원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장치"(국립중앙도서관 2006)로 정의된다. 즉, 개인(이용자)의 정보 리터러시 활동(개발, 활용, 신장 등)의 필수공간으로 디지털도서관의 위상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은 디지털도서관을 통하여 정보 리터러시 관련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디지털도서관은 개인의 정보 리터러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디지털도서관의 사회적 유용성을 설명하는 단초가 된다. 또한 기존의 각종 상용포털들과 차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 영역 대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현황과 여러 가지 관련된 요인들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연구형 학습과제 해결이라는 수행 영역을 중심으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수준실태를 간략하게 조사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5가지 수행과정 영역 중 '결과평가' 요소의 수준이 가장 높고, '정보요구' 요소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12가지 수행능력 영역 중에서는 '정보윤리의 적합성 평가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과제의 이해능력'과 '정보요구의 분해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 리터러시 모형의 5가지 수행과정 요소들은 '정보요구'와 '정보검색', '정보요

구'와 '결과평가' 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행 과정 요소들은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행과정 영역의 5가지 요소들 내에 포함되는 수행능력 요소들간에는 모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정보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분석을 한 결과, 성별, 단과대별에서는 정보 리터러시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 정보검색 첫 경험 시기, 정보검색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간에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 연구는 다양한 주제영역과 연구방법을 필요로 하는 규모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과제연구 해결에 유용한 정보 리터러시 모형을 개발하고, 개인별 격차를 진단하고, 격차해소

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적 성격에 해당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연구형 과제에 한정한 기초연구이므로, 이후에는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많은 결실들이 축적되어, 보다 유용한 모형과 평가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생들의 학습과제의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작업, 인문과학, 과학기술, 예술체육 분야 등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 리터러시의 표준 모형 개발, 개인별 격차의 진단과 평가방법의 개발,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보 리터러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및 제도화 작업 등의 실천적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정보 리터러시를 위한 사회인식론적 접근, 구성주의와 같은 각종 학습이론의 적용 등과 같은 이론적 연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298-320.
- 고영만. 2004. 대학생을 위한 정보문해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67-87.
- 고영만. 2005. 『정보문해론』, 한국도서관협회.
- 곽병희. 2004. 대학도서관 이용자와 정보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25.
-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전략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국립중앙도서관.
- 김복영. 2002. 사회과 교육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회과교육』, 41(4): 23-45.
- 김순희. 2006. 디자인분야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핵심 정보문해 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5-39.
- 박남진. 2005.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의경. 2006.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

- 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의경, 장혜란. 2005.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9(3): 207-231.
- 유소영. 2004. 정보이용 능력 기준과 정보처리 학습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251-269.
- 이정연.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정연, 정동열.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39-59.
- 이정연, 최은주. 2006.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0(1): 315-334.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 항목 개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38(1): 303-322.
- 이현실, 최상기. 2005.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식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91-107.
- 최은주, 박남진. 2005. 대학생의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4): 153-172.
- 황연주. 2001. 영상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는 미술교육에서의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교육. 『미술교육 논총』 12: 137-156.
- 『세계일보』. 2006. 대학생 70% 리포트 돋주고 샀다. 7월 27일.
- ACRL 20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hicago: ALA. [online]. [cited 2007.1.29] <www.ala.org/ala/acrl/acrlstandards/standards.pdf>.
- ALA.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online]. [cited 2007.1.29] <www.ala.org/ala/acrl/acrlpubs/white_papers/presidential.htm>.
- Aviram, Aharon & Eshet-Alkalai, Yoram. 2006. "Towards a Theory of Digital Literacy: Three Scenarios for the next Steps". *EURODL*. [online]. [cited 2007.1.29] <www.eurodl.org/materials/contrib/2006/Aharon_Aviram.htm>.
- Bruce, C. S. 1997. *Seven Faces of information Literacy*, Auslib Press.
- Bundy, Alan. 2003. "Opportunity and accountability: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ies in higher education," Tertiary Alliance libraries Group information literacy seminar(Univ. of Waikato, New Zealand). [online]. [cited 2007.1.29] <www.library.unisa.edu.au/about/paper/s/opportunity-and-accountability.pdf>.
- Bundy, Alan. 2004.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2nd ed.,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
- Campbell, Sandy. 2004. "Defining Information Literacy in the 21st Century." *World*

-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70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2004. [online]. [cited 2007.1.29] <www.ifla.org/IV/ifla70/papers/059e-Campbell.pdf>.
- Candy P. & Crebert G. & O'Leary J. 1994. "Developing lifelong learners through undergraduate education." *NBEET Commissioned Report*, No. 28, Part 3. Canberra: AGPS.
- Doyle, Christina. 1992. *Final Report to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 (University of Calgary. Information Literacy Group, 1998).
- Follett Software Company, 2000. *Pathways to Knowledge*, [online]. [cited 2007.1.29] <www.sparkfactor.com/clients/follett/home.html>.
- Kuhlthau, Carol Collier. 1999. "Accommodating the User's Information Search process: Challenges for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ers," *JASIS Bulletin* 25(3): 12-16.
- Eisenberg, Mike. 2006. "A Big6?Skills Overview" [online]. [cited 2007.1.29] <www.big6.com/showarticle.php?id=16>.
- McKenzie, Jamie. 2000. *Beyond Technology: Questioning, Research and the Information Literate School*, FNO Press.
- Online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7. [online]. [cited 2007.1.29] <lu.com/odlis/>.
- Owusu-Ansah, E. K. 2005. "Debating definitions of information literacy: enough is enough!" *Library Review* 54(6): 366-374.
- Stripling, Barbara K. & Pitts, Judy M. 1988. *Brainstorms and Blueprints: Teaching Library Research As a Thinking Process*, Libraries Unlimitted.